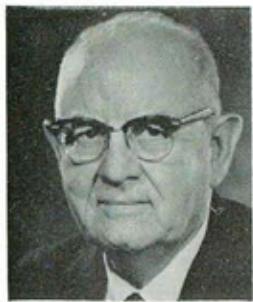


성도의벗 5
1970

“태초에” – 창세에 관한 특별 기사
본문 3 페이지 참조





영감의 멧세지

스펜서 더불유. 킴볼
12사도 정원회

사랑하는 사람의 유해 앞에 선 사람으로 유품과 같은 질문을 던진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욥기 14:14)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인 양 인간에게 참으로 위대하고 달콤한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이 질문에 대답한 사람도 많습니다. 고난과 고뇌에 젖은 마음이 짐작조차 못할 화평의 따듯한 입맞춤을 실감케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깊은 고요에 빠져 수심에 가득찬 마음과 잘기갈기 찢어진 가슴에 새로운 확신을 맛보게 될 때 사랑하는 유품의 말을 되뇌이지 않을까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욥기 19:25-27)

욥은 자기의 간증을 기록으로 남겨 앞으로 올 세대의 많은 사람이 읽기를 바랬습니다. 유품의 이러한 기원은 이루어졌다 하겠습니다. 그의 강한 간증을 읽고 화평을 맛본 심령이 많기 때문입니다.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70년 5월 1일
(통권 제58호)

발행인: 서현보
편집인: 홍무광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사합 210호

대체구파 서울 1409

인쇄소: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 가: 50원
1년 구독료 (우송료 포함)
국내 450원
국외 선박 5불, 항공 7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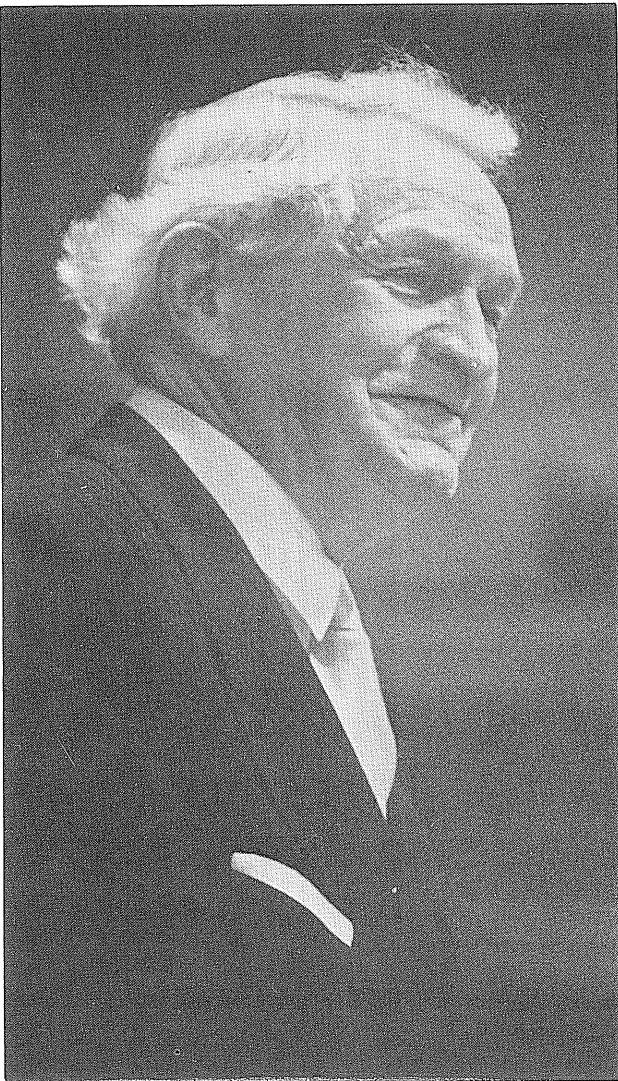
제 6 권 제 5 호

순서

1970년 5월호

□ 권두언: 무슨 이익이 있으리오 데이비드 오. 맥케이	1
□ 특집: 태초에 제이 엠. 토드 □	3
데이비드의 선택 사라 엘. 존슨	16
해서는 안될 선택 로웰 엘. 베니온	17
어느 것을 택하겠는가?	18
제리의 꿈	19
□ 관리 감독단 페이지: 약 존 에이치. 반벤버그	20
사랑을 배움 코니 채프맨	21
□ 주일학교: 주일은 특별한 날 에드나 알. 리이드	22
자녀를 가르칠 때 이. 엘브이 리챠드슨	24
행복한 결혼: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제이. 죄엔 모스, 오드라 콜 모스	27
□ 계보에 관한 말씀: 우리조상의 구원 윌리암 오. 위티커	30
□ 특별 멧세지: 시온 산의 구세주 가족의 구세주 바틀리 이. 테이	31
□ 내외소식	32
□ 진리의 말씀: 교육—무엇 때문에? 리차드 엘. 이반스	표 4

표지 설명: 이번호의 표지는 교회의 위축을 받아 스탠리 더불유. 갤리가 그린 동물의 창조를 표현하는 그림을 택했습니다. 이번호의 내용에는 같은 화가의 그림 5매도 흑백 사진으로 함께 실었습니다. 이를 그림은 미조리주 인디펜던스에 있는 방문자 센터에 비치될 예정이며 아울러 교회에서는 이 그림을 복사하여 일반용으로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문 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익이 있으리오

데이비드 오. 맥케이

제 9 대 대관장

●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요한복음 2:14)

이 의미 짚장한 구절을 보면 야고보는 단순히 지적인 지각을 통하여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진리를 매일의 생활과 행동에 일치시킬 때 비로소 제구실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믿음이 참다운 생활과 참다운 교인으로서의 제반 활동에 변영되지 않은 한 죽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읍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믿음과 실행, 고귀한 이상과 이 이상을 매일 생활에 적용하는 정도에는 너무도 큰 차이

가 있읍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이나 가르침은 그대로 개인 생활이나 사회 활동에 나타나야 하며, 만일 그렇게만 되는 경우에는 현 사회의 병폐 제거에는 물론 행복과 화평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가르칩니다.

과거 2천년 동안이란 긴 세월을 거쳐 소위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에서까지 그러한 목적 달성을 실패한 원인은 그들이 참다운 기독교의 원리와 가르침을 실제로 적용하지 못한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의 추종자에게는 종교란 하나님과

의 단순한 관계를 느끼는 것은 물론, 그러한 감정을 옳고 그름을 느끼는 가운데 봉사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것까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눈 앞에 둔 패트릭 헨리가 염두에 둔 종교가 아닌가 합니다. “나는 소유 재산 일체를 가족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푸한가지 더 전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기독교 신앙이다. 만일 그들에게 그 신앙이 있었다면 일전 한푼도 주지 않아도 부자일 것이나 신앙이 없었다면 세상을 다 주어도 가난한 자일 것이다.”

순수한 종교는 이기적이고 관능적이며, 천박한 생활을 초월할 힘을 줍니다. 어떤 철학자가 갈파했듯이 “감각으로 느끼는 세상을 초월한 생활에서 참다운 신성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 분은 계속하여 “참다운 문명이란 불가능하다. 초자연적인 생활이나 표방하면서 그 속에 깃든 신비에 가득찬 내적 관계의 수립을 의연하는 문명이란 참다운 문명의 어설픈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몇 천년을 두고 이기심, 증오, 시기, 탐욕—굽기야는 전쟁, 폐허, 역병, 죽음을 초래하는 동물적인 격정에 시달림을 받아왔습니다. 구세주가 가르쳐 주신 가르침의 간단한 원리 하나만 지켰더라도 역사 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현대 사회라는 조건에 적용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익을 위하여 전생애를 마쳤던 사람의 예를 참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밖에도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 중에 비교적 근래에 생긴 적십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을 위해 전생을 헌납한 아브라함 링컨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믿지 못하겠거든 조각가 죄지 와싱톤 박사의 위업과 겸허한 생활을 상상해 보십시오. 현존하는 인물 중에서 미국 남부의 농업에 기여한 사람은 없다는 찬사를 받고 있던 그는 십만불(당시에는 천문학적인 숫자였다.)을 거절하고 자기 이웃의 복지를 위하여 온 재능과 정력을 바쳤던 것입니다.

매일의 생활에 나타나는 기독교적인 신앙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가 하신 말씀을 진실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한 10 : 10) 그러나 우리들은 이같이 풍요한 삶이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원리를 매일의 생활에 적용하는데 얹어진다고 믿읍니다.

이러한 원리의 수는 그리 많지도 않고 또 간단한 것 이어서 원하기만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첫째되는 원리이고 참다운 기독교 사회의 반석이 되어야하는 것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하신 것입니다. 살아 계셔서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영혼의 능력과 힘을 주는 요소입니다.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은 그 분을 갈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다른 원리는 삶은 하나님의 은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성스럽다는 진리를 받아 들이는 태도입니다. 이 은사를 적절히 이용하기만 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인간의 식욕은 적당히 조절되어 건강과 생명의 연장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인간의 정렬도 역시 잘 다루어 타인의 행복과 축복, 또는 인류 번영을 위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셋째 원리로 개인의 고결성을 들겠습니다. 매일을 정직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여 이웃의 신뢰를 한 몸에 지닐 수 있도록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은 개인이나 국가에 다 필요합니다. 국력이 강대하다 하여 이웃 국가를 약탈하고 억압한다면 이웃 사람의 것을 훔치고 죽이는 일과다를 바가 없습니다.

넷째 원리는 각자에게 자기가 생활하는 이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회적인 양심입니다. 이같은 표준에 대하는 정신과 마음은 “내 생애가 나의 친구에 가치가 없다면 내 생애에도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하신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간은 언젠가는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생활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 때가 이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요한 17 : 21) 라고 하신 구세주의 기도가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믿음으로만, 언어로 주는 권고를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를 사업하면서, 사회 생활을 영위하면서 행동에 옮길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

“태초에”

제이 엠. 토드

임프로브먼트 이라 부편집인

● 아마도 창세기 첫마디 만큼 많이 읽힌 구절은 없을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1) 여기까지 읽은 사람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음 구절을 읽게 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창세기 1:2—3)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통하여 지구의 환경 조사에 진경을 보이고 있는 요즈음,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의 웅대함이나 치밀함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말일성도는 어디를 가나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보다 더 잘 알라는 권고의 말을 듣고 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일과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반드시 일어날 일과... 배우게 되리니...” (교성 88:78—79)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는 마음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하여 아는 것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지에서는 신앙과 학문이 뛰어난 형제 분들의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이 분들은 연구하고 증명하는데 시간을 할애

하여 우리 주위의 세상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30명이 넘는 말일성도 학자가 보내준 내용을 함께 실었다. 영적이면서도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기에 족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미국의 저명한 화가 두분의 그림 7점도 함께싣기로 했다. 스탠리 더불유. 갤리의 작품 6점, 해리 앤더슨의 작품 1점인데, 앤더슨씨는 창조주 예수에 관한 그림을, 갤리씨는 창조의 6일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려주었다. 교회 공보국의 호의로 복사된 그림은 모세가 적은 상상과 아름다움을 짐작케 한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31)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이같은 기쁨과 간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바이다.

온하계에 관하여

온 하늘을 돌고 있는 광활한 빛 줄기를 온하계라 부른다. 이를 지구에서 볼 때에는 원형으로 보인다. 이 원형 한 끝에 위치한 태양과 그의 위성은 초속 160키로의 속도로 온

하계를 돌고 있는데 일회전에 필요한 시간은 약 2억년이나 된다. 우리의 태양은 일초에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이나 도는 빛이 한 번 횡단하는데 십만년이나 걸린다. 하늘에 보이는 대부분의 별, 위성, 혜성, 성운 등은 은하수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예리한 눈으로 관찰하면 희미한 빛의 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된 은하계와 같은 것이 존재함을 알게 된다. 알려진 은하계의 수만도 수십억에 달한다. 은하계와의 거리가 상당함을 미루어 볼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50억 광년의 거리에 (48, 270, 000, 000, 000, 000, 000, 000, 마일) 위치한 것이 있는가 하면 10억 광년을 왔는데도 아직까지 그 빛이 도착하지 않은 별도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천문학은 아주 이상한 고고학으로 변한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희미한 과거의 형체를 그대로 갖춘 시체를 발굴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현 상태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남겨 주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홀리스 알. 존슨, 인디아나 대학교 천문학과)

외계에서의 삶에 관하여

“반세기 전만 하드래도 과학자들은 지구와 같은 위성이 존재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추측하였으나, 요즈음은 우리 은하계에는 이러한 위성이 100억개나 되며 이 우주에는 100억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런 가능성이 표면화된 것이 불과 몇년 전의 일이었는데, 현재는 이를 위성 중에는 생명을 갖춘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기에 이르렀다. 고도 방사 망원경은 이들 생명인인 보내는 신호를 포착하기 위하여 하늘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존 에이치. 가드너, 부리감 영 대학교 물리학과 주임)

“오늘날 과학계에서는 우주 어디엔가에 지능적인 생물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사실 그들이 보내는 일종의 신호를 잡을 방법을 생각중이다. 과학자가 우리 사회를 훨씬 능가하는 사회를 즐기고 있을 생물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들 인간의 형상을 갖추었으나 인간 보다는 훨씬 우위에 계신 하나님에 계시다는 이론이 큰 비약은 아니다.”(얼 엠. 폴튼슨, 클리브랜드 주립 대학교 화학과)

지구의 창조에 관하여

“태양계가 시작되었을 때 별과 별 사이의 공간에 있던 희박한 깨스에서 크고 찬 구름이 형성되었다. 구름의 중량은 인력이 생겨 다른 구름을 잡아다니기에 충분하였다. 구름은 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평평한 판과 같은 형태가 되었다가는 조그만 구름 조각으로 분산되어 태양을 중심으

로 한 위성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는 말과 일치한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란 말씀은 태양은 그 동안 누적된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는 뜻이며 빛이 이 지구에 닿았을 때 빛과 어두움은 나누어 진 것으로 믿는 바이다. (창세기 1:2—4참조)

“지구에 생물의 서식을 가능케 하는 태양은 매초 약 400만톤 이상의 열량을 발하는 깨스 덩어리이다. 그러나 태양의 열 저장량은 위와 같은 비율로 약 100억년을 계속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태양과 그 표면의 방사선으로 열을 받은 지구가 고체 또는 액체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직후 대부분, 아마도 모든 깨스를 대기권에 잃었을 것이다. 후에 지구가 냉각되었을 때 표면과 내부에 축적되어 있던 깨스가 나왔던 것이다. 지구 주위에 남아 있던 깨스가 냉각하여 대기권을 형성하거나 비를 내려 바다를 이루게 된 것이다.”(홀리스 알. 존슨, 인디아나 대학교 천문학과)

“지구의 형성에 관한 과학적인 이론을 살펴보면 위성은 태초에는 형태가 없고 공허한 것이었다. 창세기에 묘사된 창조 순서, 즉 하늘을 만든 대기권, 땅 껍질에서 솟아나는 액체물에서 수증기의 분리, 구름을 거두어 태양, 달, 별이 보이게 됨, 식물의 성장과, 물고기, 가축, 짐승 마침내는 인간의 창조 등은 오늘날 과학이 이론으로 증거한 창조의 순서와 일치하는 것이다.”(다렐 알. 비엔즈, 와싱톤 주립 대학교 원예학과 부교수)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아주 이상적인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생명을 유지하고 기후의 변화를 가능케 할 수도 있으며 통변적인 열의 폭발로 생길지도 모르는 무서운 죽음도 피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다. 또한 축을 중심으로 적당한 속도로 돌고 있어 인간과 기타 유기체가 활동하고 휴식하기에 적당한 낮과 밤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하루나 일년의 규칙성 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은 지구의 지축이 궤도면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다. 지축이 태양을 향하여 $23\frac{1}{2}$ 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의 필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조절되지 않았다면 적도 부분에는 무서운 더위, 양극에는 무서운 추위 현상을 피할 길이 없었다.”(멜빈 제이. 프로스트, 아리조나 주립대학교 지리학과부교수)

빛에 관하여

“경전에 빛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된다는 사실은 나

“이들 중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서 계시더니
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내려가자
저 곳에 공간이 있음이라.
우리는 이들 재료를 취하여
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
그 때에 주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내려가자 하시고
태초에 그들이 내려가시니라.
그들 곧 여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조직 하시며
형성하시니라.”
(아브라함서 3:24, 4:1)



를 여러번 놀라게 했다. 하나님께서도 이 놀라운 ‘물질’의 중요성을 강조하셔야 된다는 것을 아셨던 모양이다. 인간은 유구한 세월을 두고 이 발달 물질의 비밀을 벗기고자 무진 애를 써왔다. 뉴튼, 아인슈타인, 드 부로그리에, 맥스웰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는 현재의 양자 역학의 기초를 쌓기 위하여 일생을 보냈다.”(엘론 디. 브린리, 텍사스 대학교 건강학과 주임)

물에 관하여

“자연의 운영에 물처럼 중요한 물질은 없다. 우주의 용해체로서 물을 능가할 것은 없다. 그것은 땅의 광물질에서 식물의 양분을 용해하며 살아있는 세포의 유기, 무기물을 또한 용해한다. 이같은 용해 활동이 없이는 생명을 지탱하는 과정도 중지하게 된다. 물은 그 자체의 온도는 그리 변하지 않으면서 열을 흡수하거나 전하는 특별한 능력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기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물질은 응고할 때 수축되나 물은 반대로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어름은 강이나 호수의 표면 위로 떠올라 수중 생물을 보호하는 절연체의 구실을 하는 것이다. 일반 액체와 비교하여 볼 때 비등점이 높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만일에 물의 비등점이 높지 못하다면 수증기는 대기를 포화 상태로 만들며 태양의 따뜻한 광선을 빼앗아가 버릴 것이다. 참으로 물처럼 생물의 필요에 알맞는 물질은 없을 것이다.”(필립 에푸. 로우, 퍼두 대학교 토양 화학과 교수)

“물이 액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여 보자. 태양계의 높은 온도나 비교적 얕은 온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이다. 아울러 우리들이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생물은 이같은 액체 상태 이외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레이비드 엘. 클라크, 위스콘신 대학교 지학 및 지구 물리학 교수)

토양에 관하여

“흙이란 무활성의 입자나 무기체의 집합체 이상이다. 흙에는 주성분을 이루는 흙 찌꺼니 모래알 이외에도 친흙 입자를 함유하고 있다. 이들 입자는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크기이기 때문에 단위 중량당 표면에 퍼져있는 비율은 상당히 높다. 그런데 이들 표면은 물을 아주 강하게 빨아들인다. 결과적으로는 수분을 잘 간직하여 식물의 뿌리에 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하는 일의 전부는 아니다. 대부분의 광물 입자와는 달리 이 친흙 입자는 음전자를 나를 수 있도록 형성되어 있다. 이 음전자는 식물의 양분을 빨아들여 쓸려 내려가는 것을 방

지한다. 또한 흙은 아주 적은 유기체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유용한 목적에 제 구실을 다하고 있다. 가을에 나무에 달리는 쓸데없는 잎을 떨어버려 필요한 양분을 빼앗기지 않아 나무 자체를 보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입자를 혼합하여 수분과 공기를 얻게 되는 것이다.”(필립 에푸. 로우, 퍼두 대학교 토양 화학과 교수)

식물에 관하여

“식물과 꽃이 없다면 한 세대가 채 가기도 전에 모든 산소는 사라지고 마침내 우리는 죽고 만다. 공기가 생기는 이유는 오로지 식물 때문이며 이들이 만들어 준 공기를 인간은 마시는 것이다. 광합성의 방법을 통하여 만드는데 대부분의 유독성 잡초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돋고 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하여 태양 광선에서 열을 받아 이를 우리들이 먹는 음식물에 넣어주는 것이다. 인간의 육체, 아니 모든 생물은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생존하는 것인데 이 방법을 제외한다면 다른 길이 없는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취하는 음식물을 이루고 있는 화학물도 대기의 이산화 탄소에서 얻어낸 것이다. 이산화 탄소는 식물에서 작용하여 당분을 만들어낸다.”(제임스 에이. 고스, 캔ساس 주립 대학교 생물학 부교수)

“지극히 단순한 식물의 씨 하나는 다양한 추축을 냉기에 충분한 수수께끼가 된다. 생존하기 위하여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여 수축하거나 활동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새롭게 되는 과정은 아무리 현명한 인간이라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맥스 엘. 스위트, 유타 대학교 조산학, 부인과학 교수)

동물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소 (Cattle)가 반추 동물이라는 점에서 부터 많은 기적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섬유질 음식을 취할 수 있다.) 게다가 서로 다른 인자를 갖고 있어 특수한 환경, 기간, 목적에 처해 있는 인간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스코트랜드나 기타 고원 지대의 털난 말은 추위, 바람, 굽주림에 강하다. 그런가 하면 더위, 갈증, 곤충에 강한 소도 있다. 무서운 사막을 날라다 주는 낙타, 인도 및 동양에서 논이나 밭을 갈아 수많은 사람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는 황소, 현대의 목축업이 시작되기 전 적자 생존이 최상의 미덕이었던 때 평원의 왕으로 군림하던 뿔소, 인류의 또 다른 어머니라 할 수 있는 족소 등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죠지 이. 스탠플스, 북 다고타 주립 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창세기 1 : 3—5)



학교 수의학과 부교수)

“우리는 하급 날파리로부터 고등 동물에 이르기 까지 이들이 모두 복잡하고 절묘한 신경 조직을 갖추고 있고, 이들이 완전 무결하게 작용하여, 몸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소위 섬유 조직이나 신경 연접부를 통하여 사항을 전달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다. 모든 생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나 특정 조직이나 체계의 기본 작용은 그것이 맡고 있는 위치에서 완전 무결하게 기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다.”(조셉 라슨, 일리노이 대학교 곤충학과 과장)

“여러 해를 두고 동물을 관찰해 오면서 나는 동물이 저마다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창조자의 손길이 동물 왕국을 건설하였고 어떤 동물이 다른 것을 다스리게 하는 등 모든 동물에 알맞도록 완벽하게 설계하였음을 확신한다.”(글렌 피. 로프 그린, 테이비스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교 동물 영양학 교수)

식물과 동물의 통합 체제에 관하여

“최근에 우리는 생물계의 생태 체제 즉 빛과 수분만을 갖고 자급 자족하는 체제를 연구해 왔다. 식물과 동물이 이러한 연관된 체제를 통해서 서비스러우리만큼 복잡한 연결을 가지면서 서로서로에 의존해서 살고 있다. 질소라던가 인, 칼슘, 칼륨 등 일정한 조직내의 영양물은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영양소와 지구 화학, 생물학적 순환이 이러한 성분을 충분히 순환시켜서 마침내는 자급 자족의 평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식물은 어떤 관계에서 동물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순차적으로 다른 동물에게도 먹이를 제공한다. 이러한 연쇄의 체제는 식물의 계속적인 생산의 질을 가능하게 하는 완전한 순환의 방법이다. 만일 이러한 순환이 정지된다면 영양소는 한 조직내에 필요 이상으로 축적될 것이며 그대로 축적된 채 사멸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새로운 세계의 창조를 위한 사망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인간의 사망도 다른 형태의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연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아더 웰러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식물 영양학 교수.)

인간에 관하여

“우리가 살아서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우리들이 지닌 살과 뼈와 몸의 기능을 시험해 볼 수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와 같은 존재가 가능할 수 있을가를 알아내기는 꽤이나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울러 놀랍고 훌륭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것 보다 훨씬 진보된 능력을 소유하신 우리

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유추하기는 힘들지 않을 것이다.”(얼 엠. 몰튼슨, 쿨리브랜드 주립 대학교 화학과)

“살아있는 6억 개의 세포를 한 몸뚱이에 넣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천연색 테레비죤으로 완전하게 관찰한다던가, 정밀한 기계 부분이 움직이고 작용하는 모습을 투시해 본다던가, 별이나 식물 동물 태양을 바라보거나 만물의 존재 목적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움직임을 관찰하거나, 하나님에 관하여 곰곰이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아끼고 즐기고 판별할 수 있게 해주신 지혜와 능력에 대하여 무한한 놀라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맥스 엘. 스위트, 유타 대학교 조산학, 부인과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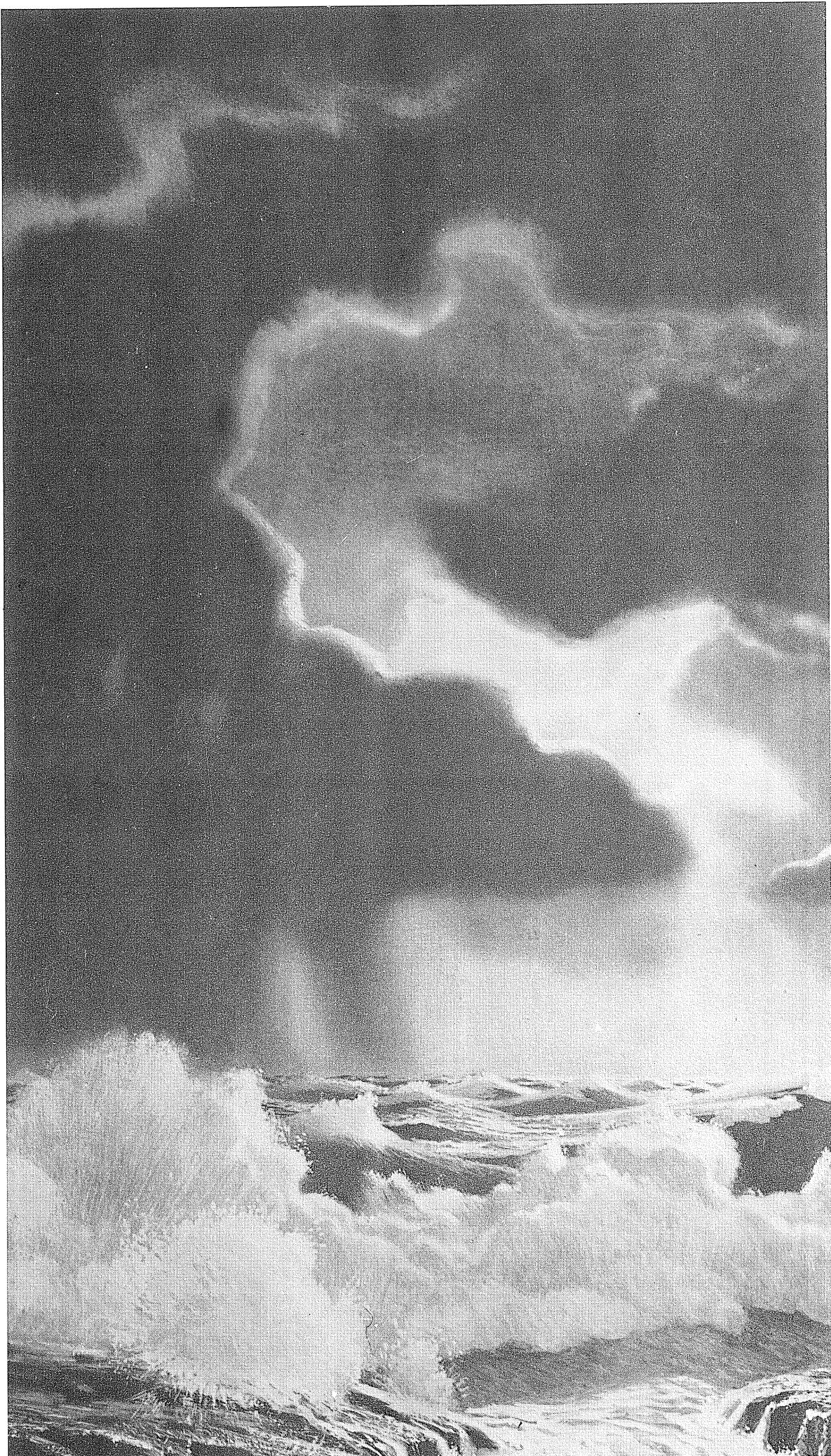
“모든 효소, 세포, 조직은 그것이 건강할 때는 늘 저마다의 특별한 기능을 발휘한다. 뿐만 아니라 신체의 각 조직은 기능이 원만하지 못할 때 이를 정상으로 ‘회복’시키거나 기타 비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을 갖고 있다.”(데이비드 엠. 스타트, 오하이오주 북부 대학 약학과 교수)

“인간이 혼자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유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첫째로는 아내와 연합하고 다음에는 자녀와 유대를 갖는다. 그리고 나서 한 가족으로의 생활만을 위해서가 아닌 이 세상 생활에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잠재 능력을 온전히 개발하기 위해서 다른 가족과 연합하여 위대한 사회 체제, 즉 교회라던가, 학교, 정부, 기타 경제 조직 등을 이룬다. 예전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삶의 규율을 주셨다. 후에 하나님은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다른 원리를 계시해 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조처로 인하여 인간은 인간으로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밖에도 인간은 평화로운 사회 구축을 위한 최상의 대책이라 생각하여 여러 가지 법칙을 만들어 냈다.”(제임스 티. 뉴크, 브리검 영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안식에 관하여

“주는 거룩하신 분으로서 매일매일을 거룩하게 사실 터이니 그 분이 지키시는 안식일이 과연 어떠할까를 범인인 나로서는 상상하기 조차 어렵다. 그러나 인간을 위하여 일곱 번째 날을 거룩하게 해 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내게 하신 데는 너무나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세상에서 심각한 생존 경쟁의 물결 속에서 나마 인간은 그의 창조주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창조주께서도 그가 지으신 모든 것과의 관계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인간으로 하여금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 : 7)



삶의 근원을 돌이켜 보고 이에 감사하게 하며 이렇게 하므로서 이웃과 들에 서식하는 동물에까지 사랑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노웰 엘. 벤온, 유타 대학교 학생처 차장)

우주에서의 법과 질서의 응용에 관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경전의 가르침을 되풀이하여 받아 왔다. (엘마 42:22, 교성 88:36—38, 42, 교성 93:30, 교성 130:20—21 이밖에도 해당 성구는 많음) 하나님은 법과 원리를 따라 사시며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실 수가 없다. 바꾸어 말하면 법과 원리가 없이는 하나님은 일관성을 갖지 못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과학적인 연구로 분석 검토될 수 있는 질서 정연한 방법으로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 됐된다. 성경과 값진 진주는 지구 창조에 관한 방대한 기록을 전하고 있으며, 이를 살펴 보면 공기의 존재에서부터 질서 정연한 발달의 과정을 통하여 식물과 동물이 생존하게 된 상태를 알아 볼 수 있고 마침내는 인간이 번성할 수 있도록 되었음을 알게 된다.”(얼 엘. 몰튼슨, 클리브랜드 주립 대학교 화학과)

“창조의 기사를 실은 경전의 기록은 하나님의 노력이 늘 질서 정연한 가운데 진행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브라함서에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일의 과정을 묘사하는데 ‘조직’이라는 지극히 질서 정연한 의미를 가진 말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질서의 체제가 없이는 우주의 삼라만상은 그것이 창조되기 이전의 무형으로 되돌아가고 말 수 밖에 없음을 뜻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과학으로 이미 그 세부까지를 증명하게 된 세상 만물의 질서요, 모습인 것이다.”(알. 오우웬 애스플런드, 와이오밍 대학교 화학과 부교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이 순종된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를 관찰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서 4:18) 모든 작업은 상당한 노력과 실험이 요구되었던 것 같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단계적으로 응용하여 창조의 모든 일을 진행시켰다고 하는 사실은 전혀 납득키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이 진화(진화라는 단어가 상당히 적절할 것 같다. 실제로 창조의 작업의 편모를 설명하고 있다)가 아니라고 한다면 원래 지어진 형태를 바탕으로 응용, 개발하고 실험을 거친 후의 보다 정돈된 상태라고 보아야겠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창세기 1:11) 그러나 인간을 지으실 때는 친히 설계하시고 나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알 수 있다.

창조의 모든 과정은 참으로 복잡한 것이다. 천지 창조가 지극히 우연한 ‘사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성경 첫 구절에 분명하게 그려졌듯이 ‘.....태초에 하나님께서.....’(창세기 1:1) 모든 일을 주관하신 것이다.”(아더 웰러스, 칼리포니아 대학교 식물 영양학 교수)

“유전학이 지극히 간단한 과정에서 보다 복잡한 상태로 진행되는 것과, 나의 종교 이념, 즉 영원한 발전의 과정이 근본적으로 같은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다.”(데렐 알. 빈스, 워싱턴 주립 대학교 원예학과 부교수)

확신과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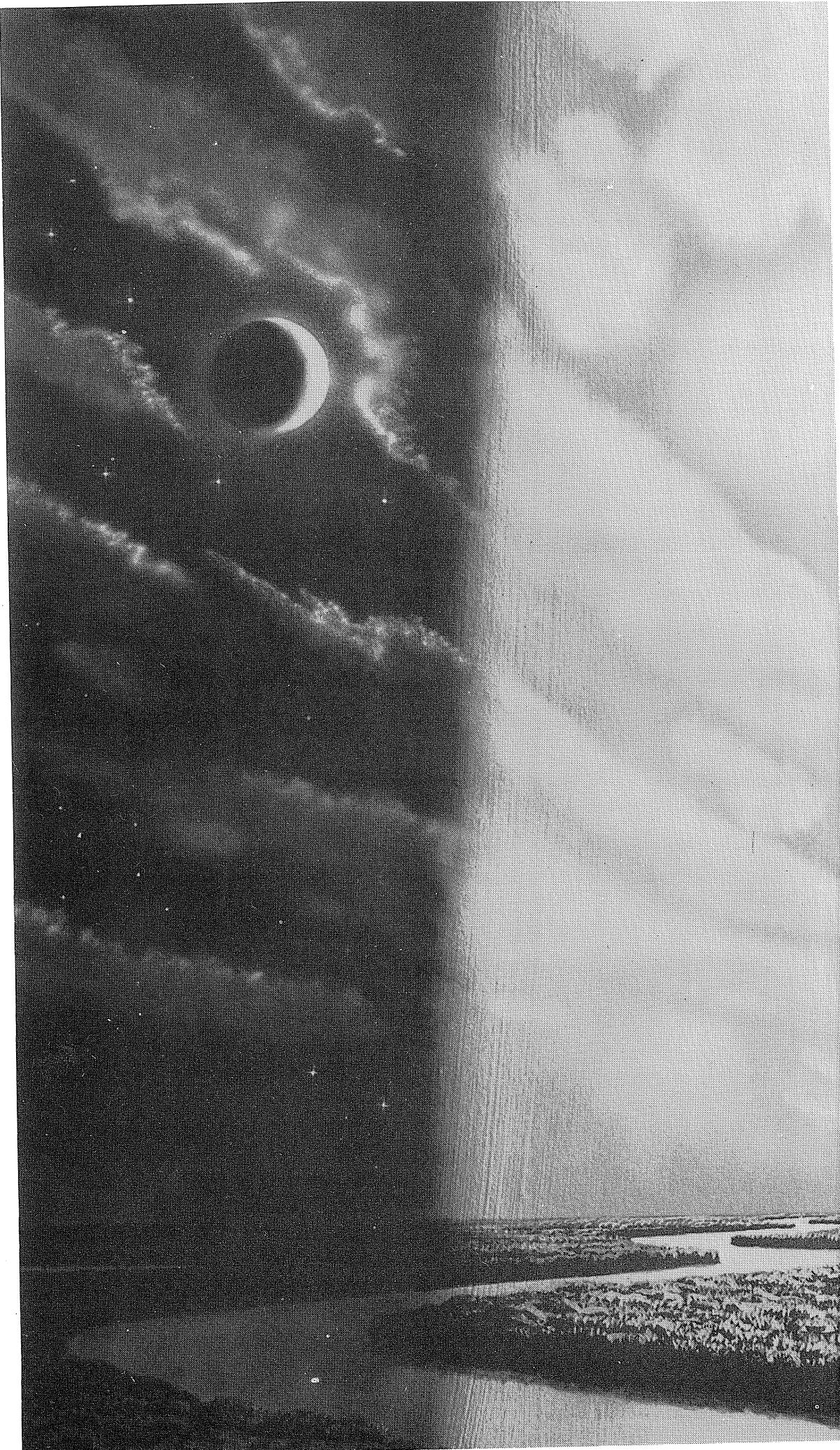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모두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나는 추호의 의심도 품지 않는다. 나는 종교나 과학이 그 창조의 절차를 풀이한데 대한 인간의 지식에 관하여는 의심을 갖고 있다. 과학이 점점 발달하여 창조의 과정을 설명할 수만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계시되었거나 현재 계시되고 있거나 장차 계시될 것을 놓고 논쟁을 가질 하등의 이유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과학이 우주의 절차와 법을 온전히 규명하게 되는 날 이를 바탕으로 성실하고 충명한 사람은 인간들 사이의 견해 차이를 완전히 초월하여 사물을 바로 직시할 것이다. 다만 진리에 대한 해석이 성실한가에 대한 문제만이 논의될 것이다.”(프랭크 디. 앤랜,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해부학 교수)

“창조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 졌느냐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가 계시되지 않았다고 불평을 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마음이 편치 않음을 느낀다. 저들은 전체의 열쇠가 담긴 말, 즉 진행된 사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 좋더라”고 하신(창세기 1:31)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기, 물, 토양, 생물의 생태 등의 순환이 아직도 우리가 보기 좋은 상태임을 인식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데이비드 에이. 화이트, 브리검 영 대학교 동물학 조교수)

“경전의 창조에 관한 기사가 간략하고 완벽하지 못하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설명하고 있다. 나는 성스러운 계시에 의하지 않고 옛 선지자들이 임의로 창조의 과정을 조작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는다. 전혀 불가능한 일 이니까. 그들은 현재 경전에 기록한 대로의 기록을 남길 만한 지식이나 방법 이외의 것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알. 그랜트. 애틠이, 콜로라도 불티, 고 관측소, 천체물리학자)

“진정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창조란 현재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진행의 상태다. 태초에 설치되고 사용되었을 창조의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창세기 1 : 16)



기구는 현재에도 계속해서 인자를 다시 결합하여 성격과 개성이 다른 육적, 영적인 개체를 생성, 개발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간이 근본적으로 공통된 모양을 하고 있으나 저마다의 개체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기 나름의 특성을 갖는다.”(프랭크 디. 앤랜, 죄지 와싱톤 대학교 해부학 교수)

“성경이 원래 과학 서적으로 쓰이지 않은 까닭에 성경의 지구에 대한 물리학적 설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못된다. 성경은 신앙, 소망, 사랑, 기쁨, 연민의 정, 회개, 인간의 성품, 개성, 성장 등의 영원한 원리는 많이 다루고 있으나 천문학, 화학, 수학, 생물학 등에 관하여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천부로 주신 능력으로 인간은 지구를 운영하는 원리와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신 것임이 확실하다.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로 전하신 영원한 진리는 듣겠다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교훈인 것이다. ‘남에게 봉사하라’(누가6:31 참조) ‘심판하지 말라’(마태7:1) ‘너희 죄가 주홍같을 짜라도….’(이사야1:18 참조) ‘애통하는…’(시편4:18 참조) ‘운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마태5:5) 등의 진리는 인간이 다른 어느 실험실이나 연구소에서는 얻지 못할 소망인 목표와 의미를 지닌 것이다.”(하워드 씨. 스터쓰, 브리감 영 대학교 생물학 교수)

“하늘에 관한 몇 가지 진리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서로 비교해 보면 이를 창조한 지혜나 권세의 편린을 어렵잖으나마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창조의 작업에 연결된 권세가 우리들의 범속한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다.”(노발제이. 와들, 아이오와 주립 대학교 농학과 부교수)

“우리는 마태 수난곡을 작곡한 악성 바하의 영감적인 착상에 그저 놀라움을 금치 못할 뿐이다. 그 작품의 예술적인 가치는 물론 풍부한 감정의 흐름, 전체의 배열 등을 영감에 의한 시현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의 한계는 어떤 것인가? —그의 폭넓은 시야, 지구를 창조하고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려는 일을 계획하고 이행한 그의 감정은 어떠한가? 그리스도는 우리가 일찍이 이 세상에서는 가져 보지 못한 그런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며 이를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그 수가 적은 것이다.”(메릴 케이. 브렛샤, 브리감 영 대학교 작곡과)

“건축하는 사람의 지도자로서 또 운영 관리의 대장으로서 엘로힘과 여호와는 물리, 생물 그리고 사회 과학의 모든 분

야에서 단연 뛰어난 지도자였다.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라던가 정확한 계획의 검토라던가 혹은 인간의 과학에만의 존하지 않고 상상력이 미치는 아주 먼 곳의 것까지 이용하여 진리와 원리의 원칙에 적용하여 운영하고 관리한 점은 놀라울다.”(윌리암 더불유. 리더, 브리감 영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생물이라도 그 구조가 치극히 오묘하고 놀라우며 여러 가지 기관이 훌륭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인간과 같은 고등 동물의 창조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상상조차 불가능하다.”(지. 프레드 소머스, 텔웨어 대학교 생물학과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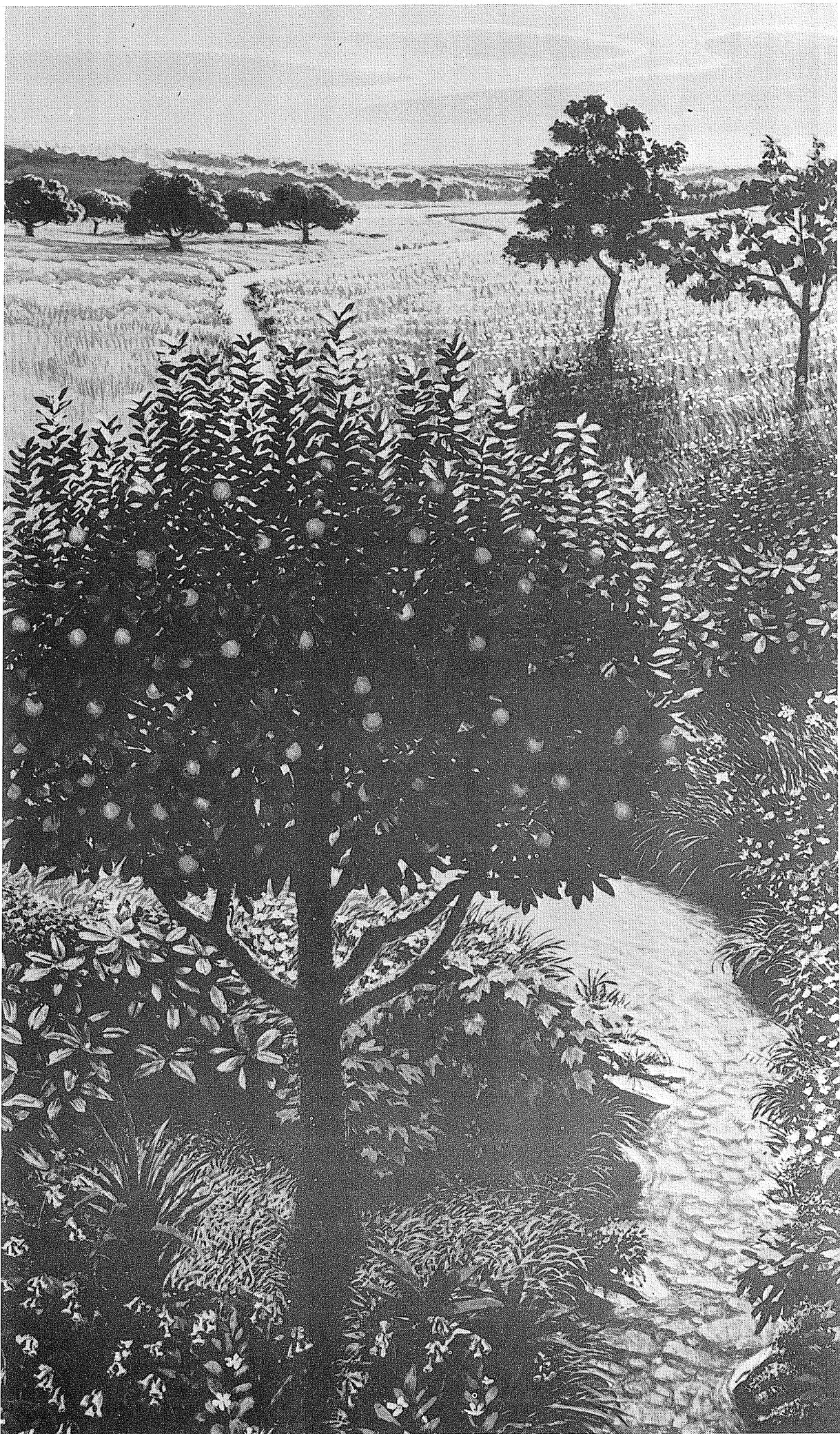
“돌밭에서 자란 풀잎을 뽑아 이 풀을 음식으로 만들어 섭취한 다음 이로써 사람이 필요로 하는 육체와 정신의 거름이 되게 한다면 이로써 태양 열을 인간이 완전히 이용한 결과가 된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을 것이다.”(맥스 앤. 스위트, 유타 대학교 조산학 부인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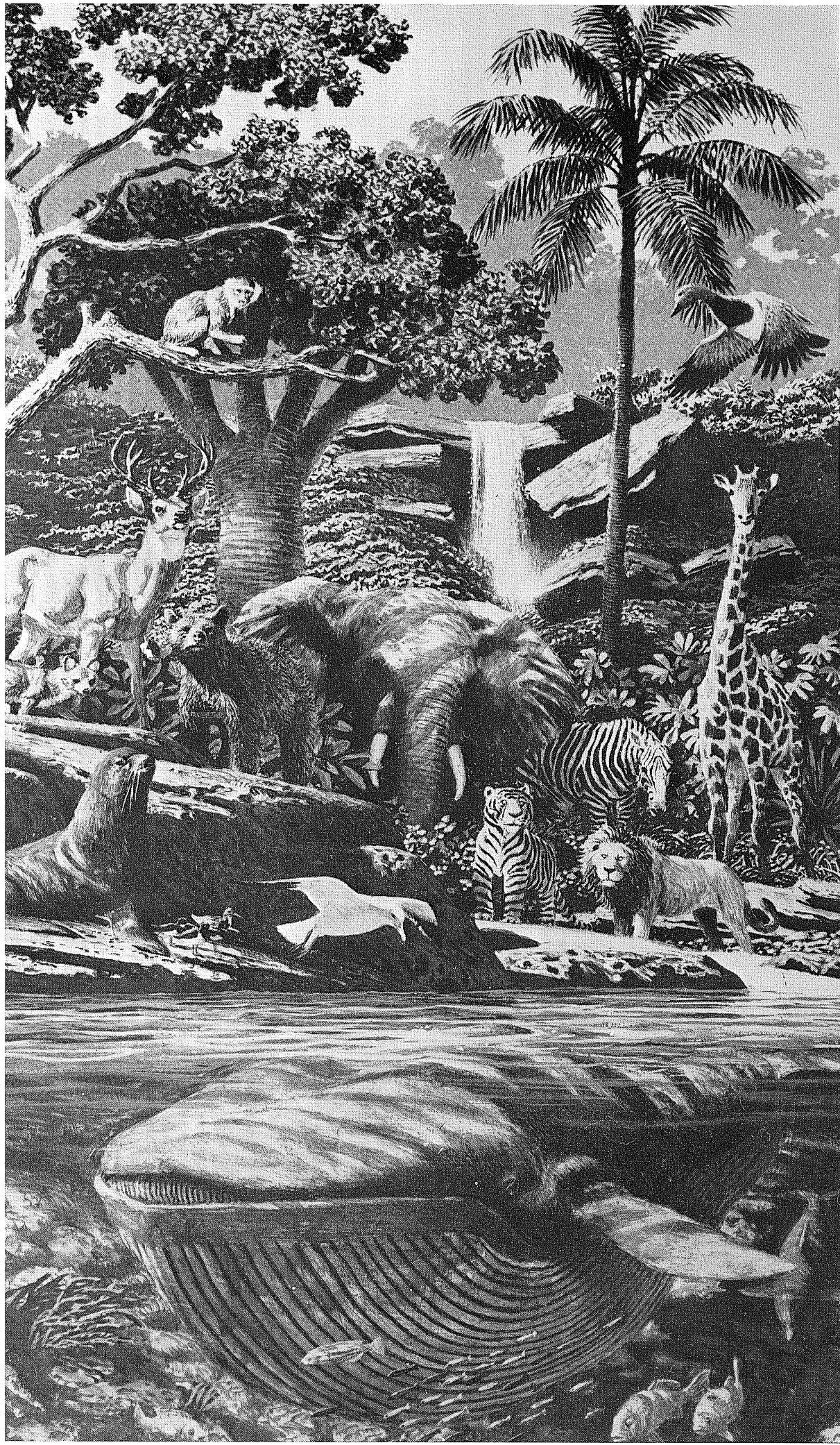
“여러 세기를 두고 연구와 실험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인간은 사람의 심장을 이식하는데 성공하였고 이식한 후 잠시 생명을 유지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사람을 달에 보내어 다시 로켓으로 지구에 귀환시키는 작업을 성공하였다. 그러나 인간은 하찮은 감기도 제대로 퇴치하지 못하였고, 탄수화물의 광합성 작용을 인위로 조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발형이 옛날에 한 것처럼 문둥병을 치유하지도 못하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지도 못하고 있다.”(죠지 이. 스테이플스, 북 다코다 주립 대학교 수의학과 부교수)

“창세기 일장에 실린 장엄한 창조의 이야기는 창조가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산 증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겠느냐고 인간이 발버둥치며 그 세세한 작업의 과정에 부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땅의 기초를 놓았고 그의 명철로 하늘이 형성되었다는 신앙이나 성경상의 설명을 어찌지는 못할 것이다. 그의 지식으로 인하여 궁창의 깊이가 생겼고 구름은 이슬을 내려준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모두 다음과 같은 약속이 주어진다.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에 장식이 되리니, 네가 네 걸을 안연히 행하겠고 네 밭이 거치지 아니 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 하겠고, ……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잠언3:19—20, 22, 24, 26 참조)(로웰 앤. 벤윤, 유타 대학교 학생처 차장) ○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침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대로 되어” (창세기 1 : 10—11)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 21, 24)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 : 26)

아이들이 복음 원리에 일치하는 선택을 했을 때 그 부모가 칭찬하여 주면 아이들은 아주 흐뭇해합니다. 지혜롭게 선택하였을 때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칭찬하여 주어야 합니다.

데이비드의 선택

사라 엘. 존슨

● “여기 작난감 비행기 하구 껌 한통이 있는데, 아무거나 너 갖고 싶은대로 가져라.” 데이비드의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껌에 시선을 주었던 데이비드는 다시 비행기로 옮겼습니다. 둘 다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데이비드는 껌을 원했습니다. “껌이 좋지! 파자처럼 달기 두 하구. 씹다가 길게 느릴 수도 있구. 그뿐인가 오래가기도 하거든.”

그러나 데이비드는 비행기도 갖고 싶었습니다. “친구 캐니도 작난감 비행기를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늘에 던져 날게 할 수도 있고. 비행기를 갖게 되면 그걸 가지구 캐니와 함께 놀면 더 재미가 있겠지!” 데이비드는 곰곰히 생각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껌을 쳐다보다가는 다시 비행기를 쳐다보았습니다. 껌통을 들고는 부려운듯 이리 저리 돌려 보았습니다. 코에 대고 냄새도 맡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선뜻 비행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가져라.” 할머니께서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데이비드는 비행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데이비드는 비행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온 데이비드는 물었습니다. “한 통에 껌이 몇 개 들었어요, 할머니?”

“다섯 개 들었지.”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데이비드는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누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드디어 데이비드는 선택했습니다. 껌통을 뜯어 누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나씩 드렸습니다.

마지막 껌을 뜯어 입에 넣고 씹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할머니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활짝 웃었습니다.

“참 좋아요! 껌을 모두 좋아하시네요.” ○



해서는 않될 선택

로웰 엘. 베니온

● 시장은 무척이나 바쁜 날이었다. 학교 아이들은 말, 꽈지, 소, 양, 당나귀, 회전 목마 등을 쳐다보고 있었다. 열 살 먹은 래리와 수도 그곳에 있었다.

왕복 차비 이십전 이외에도 일불씩을 용돈으로 받았다. 원하는대로 써도 되는 돈이었다. 여섯 시가 되었으니 집에 가야 했다. 과자도 사먹고 말도 타고 하다보니 20전씩 밖에 남지 않았다. 두 사람의 빼스 값에 지나지 않는 돈이었다. 수보다 두 살 위인 래리는 그 돈을 잘 잴수하였다.

시장을 빠져나오다 아이스크림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다. 먹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한단 말인가?

“좋은 수가 있다!” 그는 생각했다. “빼스를 타는 아이가 많을 텐데 문제없어. 수의 돈으로 사먹자. 두 사람이 타고 십전을 넣어도 눈여겨 보는 사람도 없을 테니 걱정할 것은 못되지.”

그리하여 래리는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 보다는 맛이 없었다. 십전 짜리 하나를 내고 둘이 타야하니 은근히 걱정되었던 것이다.

빼스에 올라가자 래리는 앞에 가는 수를 슬쩍 밀고는 십전 짜리 동전을 집어 넣었다. 그리고는 자기의 어색한 표정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운전사의 눈을 의식적으로 피했다. 운전수 아저씨는 아주 똑똑히 보고 있었다. 래리를 불러 세우고는 물었다. “어떻게 십전만 내고 둘이 타지?”

래리의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다. 들킨 것이었다. 그러나 그대로 있다가는 더욱 곤란해질 것을 안 래리는 우기기 시작했다.

“아녜요, 두 개 집어 넣었어요.”

믿지 않는 눈치였으나 자꾸만 우기니 하는 도리가

없었다. 래리와 수는 자리에 앉았다.

“휴우, 둘킬번 했구나. 다행히 쫓겨 내리거나 순경에게 넘어 가지 않았으니 다행이지.”

그러나 그의 걱정이 다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빼스 회사를 속이려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이웃 집에 사는 죄지 햄프頓을 생각했다. 무슨 놀이를 할 때면 반드시 속이는 그를 얼마나 미워했던가. 죄지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던 자신이었다. 이제는 “너두 마찬가지로구나.”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불을 주신 아버지를 생각했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시는 아버지다. 침례를 받으면서 어린 예수와 같이 되겠다고 한 약속을 상기하였다.

저녁도 제대로 못먹었다.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먹은 때문만은 아니었다. 두 가지가 걱정이었다. 첫째는 남을 속인 것이고 둘째는 그 속임수를 감추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판단하셨다. 저녁 상을 물리고 나자 아버지는 래리를 불러 앉히고는 물으셨다. “왜 그러니, 좋지 않은 음식이라도 먹은 게 아니냐?”

“아녜요, 아버지.” 다시 정직해지기로 작정했다.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는 오늘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이야기를 마치자 아버지가 물으셨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때려주시든지…… 전 맞아야 해요.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의 매를 맞든, 안맞든 저의 마음으로는 벌을 받은 거예요. 십전을 깊어야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예요.” ○

어느 것을 택 하겠는가?



“좋아하지도 않는 걸
어떻게 먹는단.”



“좋아하지는 않지만
한번 먹어 봐야겠다.”



“내 자전거 타지 말란 말이야.”



“우리 돌아가면서 타자.”



“내 공 안내놔?”



“넌 이 인형을 가져라.
난 공을 가질께”

● “다음 토요일에는 봉두락에 가서 스키 구경을 한다.” 어머니께서는 일월의 어떤 겨울 아침에 이 사실을 발표하셨습니다.

제리는 이 반가운 소식을 믿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푹푹 빠지는 눈 위에서 신나게 스키를 즐기고 있을 때 창문가 의자에 앉아 보고만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여름에 수영이나 야구를 못하고도 못견딜 지경이지만 한겨울에 눈 사람을 만들거나 언덕 꼭대기에서 셀매를 신나게 타고 내려오는 것을 절름발이가 되어 그대로 보고 있으려면 정말 축는 것이 낫다고까지 생각하였습니다.

개다가 제리는 스키를 해보고 싶어 하던 터였습니다. 제리는 소아마비에 걸리기 전만 하여도 겨울마다 봉두락에 다녀온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며 자기도 조금 더 나이를 먹어 스키를 살수만 있으면 스키 선수가 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병에 걸려 그렇게도 열망하던 가파른 슬로프를 달려 내려가는 스키에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봉두락에 가보고 싶다는 희망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직접 하지는 못한다 하여도 다른 사람이 즐기는 것을 보기만이라도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엔 갈 수 있다니!

토요일은 영영 오지 않는 것 같았으나 마침내 그날은 닥쳐왔습니다. 아침 일찍 특별히 마련한 대형 뼈스가 제리가 살고 있는 적은 집 앞에 멈추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과 함께 희고 아름다운 의계를 구경할 때의 홍분은 말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뼈스는 소나무 사이를 뚫고 거의 산 꼭대기에 까지 올라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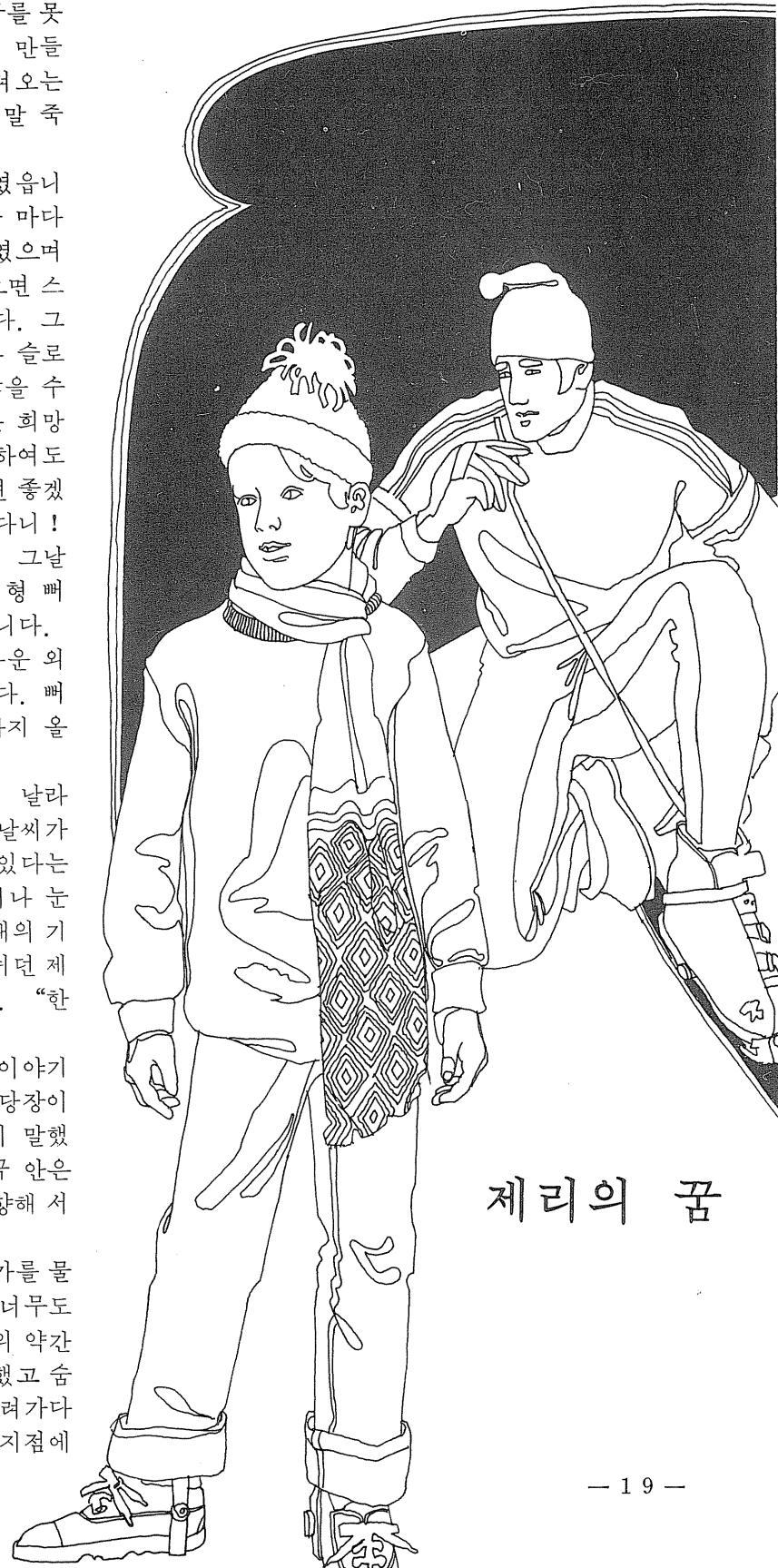
스키 센터에는 아이들을 스키 슬로프 끝까지 날라다 주는 특별한 의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날씨가 매워 다리가 시리기는 하였지만 봉두락에 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눈덮힌 저 언덕 아래로 한번이라고 달려 내려갈 때의 기분을 맛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숨을 몰아쉬던 제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때에 힘센 팔이 자리를 안아 올리며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지.” 옆에 서 있던 스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스키 꼬챙이를 눈 위에 끊고 제리를 꼭 안은 다음 원 손으로 밧줄을 잡고 슬로프 꼭대기를 향해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스키 선생님은 제리를 내려다 보면서 편안한가를 물어 보았습니다. 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도 놀라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꼭대기 부분의 약간 가파른 부분을 통과할 때 제리는 눈 앞이 캄캄했고 숨도 못 쉬었습니다. 넓게 터진 슬로프를 달려 내려가다 완만한 커브를 돌아 다른 아이들이 모여 있는 지점에

정지하였습니다.

그 분은 다른 아이들도 차례로 데리고 올라가 타고 내려오고는 했습니다. 추위도 잊고 적어도 잠깐 동안은 자기가 그렇게도 그리던 스키 선수의 꿈이 실현된 것 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의 절룩거리는 다리도 잊고 있었습니다. ○



제리의 꿈



관리 감독이 젊은이에게 주는 말씀 약

존 에이치. 반덴버그

● 성경에 보면 여리고 근처의 길 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냥을 구하는 소경 거지 바디매오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어느날 예수는 제자와 수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도착하셨다. 나사렛의 예수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바디매오는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이 말을 듣고 거지를 부르자 바디매오는 몸을 움직여 가까이 갔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다. 수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과 동냥을 구하였던 바디매오가 주님에게는 다른 것을 원했던 것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마가 10:46)

오늘날에도 이 소경 거지와 같지는 않지만 인생이란 고가 도로에

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더구나 큰 문제는 그들이 음식이나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들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구걸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구걸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직접 보고 경험하여 인생에 심한 환멸을 느낀 사람이 아주 많다. 그리하여 현실의 도피 내지는 합리화를 위하여, 아니면 “인생의 보다 큰 의미를 발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화학물이나 약을 사용하기에 이른 사람도 많다.

약을 남용하는 정도는 놀라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미 과거에 약의 유혹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여러분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무슨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될 때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인은 현명한 판단이 무엇인

가를 사실에 입각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모의를 펴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악과 음모를” 아시는 주님께서 권고하신 말씀을 들어보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려하리라.”(고전 3:16-17)

둘째, 주님께서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되나니” 하셨다. (교성 82:3) 훌륭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며,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도 많은 잇점은 가지고 있으며 더구나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뜻과 목적까지를 아는 말일 정도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막중한 책임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옳은 판단을 하며, 이 세상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고 계시다.

마지막으로 유타주 약품 오용 방지 위원회 사무국장인 부르스 에이치. 울리가 제언한 내용을 소개하고 싶다.

“젊은 말일성도라면 약 문제를 무시해서도 안되며 약의 오용에 빠져서도 안된다. 우리들은 약으로 가득찬 사회에 살고 있다.

“젊은 사람으로 약에 빠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대부분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의 근본적인 문제에 의미 있는 해답을 얻기를 몹시 바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많은 사람이 약이 특히 엘.에스. 디.나 마루쥐아나가 원하는 답을 제공해 주리라 믿고 있다.

말일성도인 여러분은 친구에게 과연 어떤 약이 좋고 기쁜가에 관한 의문에 명쾌한 해답을 주어야 한

다. 그들에게 이성적인 판단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다음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엘.에스.디. 마루쥐아나 등의 약은 가장 현명하고 진실한 사람을 바로 만든다. 위험하고도 교묘한 자기 환멸을 조장해 준다. 그들은 그러한 종류의 약이 절대로 보다

좋은 사람을 만들어 주지 못한다는 점을 모른다. 약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랑과 형제애를 이야기 하겠지만 게으름, 몰이해, 질투, 공포 등의 인간적인 속성을 독차지하고 있다. 약에서 헤어 나지 못하는 사람도 정직하고 객관적인 상태에서 말한다면 약이란 권장할 게 못된다는 사실은

인정할 것이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시력이나 삶의 뜻을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읽어 본 소경 거지 바디매오가 알려준 해답이 적당할 것이다. “저가 곧 보게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리라.” ○

사랑을 배움

코니 채프맨

● 캘리포니아주 엘 몬테 스테이크, 헤시엔다 하이츠 와드의 월계반 봉사 활동을 통하여 저희들은 사랑을 배웠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의 약 두 시간 동안을 저능아 수용소의 꼬마들을 방문하고는 했습니다. 약 50명이 살고 있는데 연령별로 보면 생후 수개월에서 13살에 이릅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일하기 전에 우리들은 정신과 의사로 사회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의 지시를 들었읍니다. 그 분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특수아들과 일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권리와 책임을 가졌으며 저능이나 발작아가 서로 다른 것처럼 우리도 모두가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처지를 타거나 그들이 우리의 처지를 타고 태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들 어린이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단지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닌 자발적인 마음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동정하는 눈치를 보이지 말고 감정이입의 태도를 보이라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들은 일정한 형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중에 배웁니다. 백의의 간호원과는 다른 인상을 주기 위하여 아주 밝은 색의 옷을 입었읍니다. 그러면 이들은 우리를 간호원이 아닌 방문객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정해진 시간에 거르지 않고 방문하여 그들에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었읍니다.

처음에는 차분하게 확신에 찬 행동을 보이기가 어

려웠는데 특히 아이들을 보기 전까지는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더욱 난처하게 만든 것은 그 아이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었읍니다. 보통 정상적인 아이라도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기 전까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그 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우리들을 둘러싸는 등 반가이 맞아 주었으며 우리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마태 25:40) 우리들의 경우에는 아주 수월한 것을 말하고 견고 배우려고 하는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광경을 흔히 보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그것이 크든 적든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들은 그곳의 아이를 모두 좋아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귀한 친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읍니다. 이들 특별한 영혼도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등의 초등협회 노래를 불러준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두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우리들은 그 방 안에 잡둔 기쁨과 아름다운 화평감에 감동되었습니다.

우리가 커서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 생활이 지금 생각하는 것 보다도 더 심각하게 대두될 때에라도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우리들 마음과 가슴 속에 봉사와 우의의 불꽃을 심어준 그 때의 화평과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

● 아이를 갖게 되면서부터 주일만 되면 자문하여 보는 문제가 있다. “가족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편과 나 사이에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습성을 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다.

가족을 사랑, 화평, 복음의 이해 속에 하나로 만들고 싶은 어머니는…

주일은 특별한 날

에드나 알. 리이드

모두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바라왔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행동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기를 바라면서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 왔던가?

신권회, 주일학교, 성찬식, 이외에도 교회가 마련한 모임에는 우선적으로 참석하여야 했다. 이러한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 하루의 많은 부분이 없어졌다. 그러나 하루를 통하여 가족이 전원 참여할 특별한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여야 했다. 주일에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에 관하여서는 교회 선지자나 지도자의 글이나 말씀에 수 없이 강조되어 온 바이다. 우리가 경험한 바를 토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보냈는가의 여부를 결정할 항목을 적어 보면 :

- 1) 복음의 지식을 늘리는 활동이었는가?
- 2) 가족을 하나로 묶는 활동이었는가?
- 3) 가정으로 사랑과 화평을 불러들이는 활동이었는가?
- 4) 주일에만 꼭 할 수 있는 활동이었는가?

주일은 조부모를 모셔오거나 맥을 방문하는 날이다. 인자하고, 너그러우며 영적인 조부모를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분들이 젊었을 시절의 경험이나, 선조가 보여주신 훌륭한 예를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한 주일을 맞았었

던가. 우리 자녀에게 평생을 하나님과 이웃을 돋는 일에 바쳤던 선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으니 얼마나 큰 행복인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들이 보여주신 본보기대로 살려는 의욕이 북돋아지고는 한다.

주일은 남편과 함께 우리가 선교사로 일할 때 다루었던 기초적인 문제를 하나씩 공부해 나가기로 정한 날이기도 했다. 개종자가 물론경, 복음의 원리, 또 한 간증을 위해 기도할 때 경험하는 즐거움을 우리 아이들도 맛보기를 원했다. 이 밖에도 교회 공과 책이나 잡지, 복음에 관하여 쓴 책에서 골라 복음을 가르치는 날이다.

요즈음의 안식일 활동에는 몇 년전의 그것과도 다른 것이 있다. 큰 딸이 고등학교 이학년, 막내면서 유일한 아들이 국민학교 6학년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 만은 새로운 묘안을 고안 해내어 같은 분위기를 유지할 수가 있다.

스크랩 북과 최근의 일기를 정리하는 데 시간을 할애한다. 누구나 특별한 추억과 개인 역사로 가득찬 스크랩 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주일은 가족이 함께 모여 노래하기에 적당한 날이다. 생일 파티, 떨어졌던 가족과의 재회, 추수 감사절, 성탄절, 가정의 밤과 같은 때를 맞아 훌륭한 할아버지에게 시간을 드려 새로운 의욕을 다짐하는 방법도 아주 효과적이다. 이런 활동을 대본을 쓴다든가, 악기를 연주한다든가, 간단한 연극이나 노래를 같이 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꼭두각시 놀음은 어린 아이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였다. 지난 주일 저녁만 하여도 다음 주에 가족 앞에 꼭두각시 놀이에 필요한 음악을 녹음하느라고 두 시간을 쉽게 보내는 것을 보았다.

주일에는 많은 교회 활동 때문에 다른 날보다 훨씬 간소한 음식을 들지만 그릇 등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사용한다.

주일은 미리 약속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친구가 방문해 주었으면 하는 날이다.

가족이 저녁 식탁에 둘러 앉아 지난 한 주일의 활동을 평가하고 다음 주일

을 계획하는 날이다. 지난 주일에 일어났던 일 중에서 기뻤던 일, 시정했으면 하는 부분을 토론하고 충고하여 준다. 삶을 놓고 목적하는 바, 감정, 서로에 대한 사랑, 공공 행사에 대한 관심을 자유롭게 교환한다.

남편이, 아이들이 한 주일 동안에 학교나 교회에서 지명 받은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날이다. 여

하한 경우라도 내일로 미루는 일은 없도록 한다. 남편이 모은 동전, 용어집, 소년단 시상, 읽을 책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누구나 교사로서의 기반을 굳게 해준다. 토론 중에는 반드시 우리가 배운 진리, 하늘 아버지가 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간증을 드린다.

영화관을 찾지 않으며 운동이나 물건을 사지 않는 날이다. 수영도 안하는 날

이다. 조용히 쉬거나 책을 읽기에 적당한 날이다.

주일은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고 서로의 관심사를 알고 이해하는,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되어온 날이다.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분과 같이 되기 위하여 전력을 다짐할 이 날을 주신 주님에게 감사할 뿐이다. ○

6월 주일학교 성찬식 전주곡

Darwin K. Wolford

6월 주일학교 성찬식 성문 봉독

장년 주일학교

요한복음8장31, 32절

유년 주일학교

창세기 1장 2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6월 주일학교 연습 찬송

장년 주일학교

97장 의와 진리 지키기에

유년 주일학교

130장 사랑하는 어머니

6월 주일학교 성구 암송

야고보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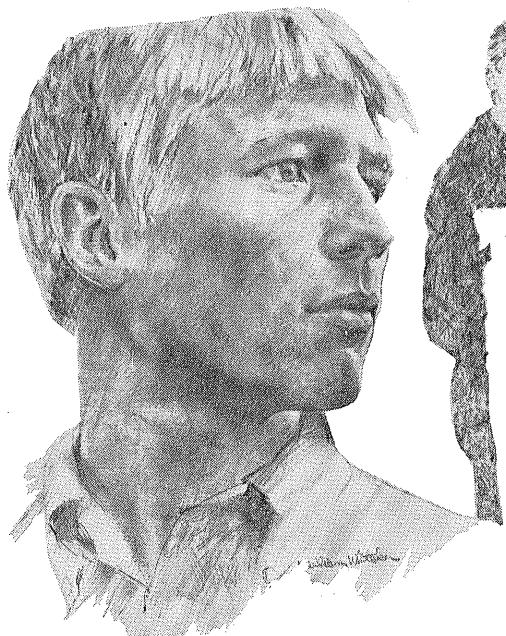
히브리서 5장 4절

복음의 멧세지 반

누가복음 22장 19절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라

또 뼈을 가져 사례하시고 뼈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녀를 가르침

01. LV 리차드슨

●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다. 자기와 부모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와 똑같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며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완전의 단계에 까지 이르려면 많은 것을 배우며 행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목표이다. 우리의 자녀는, 부모되는 분들도 비록 그것이 고의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실책을 범하는 수가 있으나, 자녀를 하나님을닮아가게 성장시키고 싶다는 소망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여 항상 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대신 맡아 처리해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야욕을 억제하며 사회가 인정하는 습관과 행동 규범에 쫓아 생활하는 방법도 터득한 사람들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개성의 독특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사람들이다. 대개 같은 연령의 아이들이 그렇지만 친구의 말에 잘 기울어지며 결과적으로는 부모의 충고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반대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다. 가족을 떠난 활동에 신경을 쓰게 된다. 따라서 가정과 부모의 감독을 떠나고 싶은 자극을 부단히 받게 된다. 그들은 타인의 협조를 받지 않고 중대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려 한다. 즉 그들은 자기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의 지시를 보다 쉽게 받아 들이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이성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매력적이며 인기있는 여자에 대한 눈을 뜨게 되며 자기 스스로도 매력적이며 인기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교사의 가르침 보다는 여자의 관심을 끄는 일이 더 중요하게 부각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가족에 신앙과 신뢰를 가지고는 있으나 부모가 내려주는 결정에 항상 만족하지는 못한다. 이미 자신과 가

족이 협조하여 내린 인생의 목표를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문제의 해결을 가정 밖에서 구하려 한다. 그러므로 교사인 여러분은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을까?” “요셉 스미스는 정말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보았던가?” “꼭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선교사는 부모나 와드 감독이 기대하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한 것일까?” “파연 현대의 도덕은 옛날의 부도덕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일까?” “지혜의 말씀은 꼭 지켜야 하는가?” “십일조나 기타 현금이 교회, 부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요한가?” “왜 세상의 젊은이와는 다른 행동을 해야하는가?” 이 밖에도 수많은 문제가 그들의 생각 속에는 자리를 잡고 있다. 그 중에는 부모와 상의하지 않은 문제도 있게 마련이다.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전부 해결해 줄 수도 없지만 또 그래서는 안된다.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우리가 해준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서로 다른 근원에서 생각, 권고, 충고, 지시를 받게 마련이다. 아마도 그들은 우리들이 자기를 도와주겠다는 일념에서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명백히 알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도와주겠다는 시도에 지속성이 없다는 것도 알고 불만의 대상으로 삼는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볼 때 결정은 그들 스스로가 내려야 하는 것이다. 교사로서의 여러분은 그들이 여러분의 고결성, 신앙 또는 확신의 진실성에 의심을 품게 해서는 안된다.

본인은 여러분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겠으나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지식을 통하여 그들을 가르치려 할 때 유의해 주기를 바라는 것 몇 가지를 같이

때

이 리차드슨은 유타주 오렘 제31와드 회원으로 종교 학원의 교과편성 책임자로 재직중이다. 부인과의 사이에는 일곱 자녀가 있다.

토론해 보고자 한다. 가정에서 배운 것 이외에도 여러분과 같이하는 가운데 얻은 새로운 경험은 그들이 이지상에 살고 있을 동안 맡은 책임은 물론 왕국 회원이 되기에 충분한 성품을 형성해 줄 것으로 믿는다.

교사로서, 우리를 부모와는 다른 방법으로 사랑해 주기 바란다. 여러 가지 면에서 특이한 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절친한 친구가 되어 달라는 부탁이다. 그의 독특성에 신경을 써 주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가 병과 사회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독특성을 발휘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닌 성격의 소요자로서 자신을 평가하도록 일깨워 주어야 한다. 목표 달성 방법, 이상, 또는 이해의 정도에서 뛰어 났다고 느껴야 한다. 그들이 벌리고 있는 성공에의 투쟁에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필요하다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이어야 한다. 이 연령에는 이기심과 자신의 행복과 발전에 굽굽하는 모습이 두드러지지만 10대의 청소년에게는 그다지 이상한 현상은 못된다. 자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아량을 배우게 된다. 구세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 밑에 흐르고 있는 뜻을 생각하여 보면 좋을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의 간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게 하며 언제나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처리하여서는 안된다는 지각력을 발전시킬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복음의 지식을 얻기 위하여는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교사로서의 막중한 책임은 어떻게 하면 이 위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들에게 진리를 찾겠다는 열의를 갖게 하려 할 때에는 적극적이며 전체적이며

낙천적인 경로를 밟아 인도하여 성령의 인도와 영감을 즐길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의 생활 속에는 부정적인 영향도 것들어 있을 것이다. 그들을 구세주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요소에서 보호하는 행동이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니나 그러한 요소가 있음을 구태어 강조할 필요는 없다. 확신의 농도로 진리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어야 한다. 복음의 참다운 진리의 말씀과 근거도 없는 전설이나 미신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문제에 일일이 답해 주지 않는 게 좋다. 우리에게는 현대 예언자가 있어 계속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고 또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말씀을 인정하면 “현재도 주어지지 않은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가정에서도 후에는 불신만을 조장케 하는 확실치 않은 답변을 늘어놓는 것 보다는 “잘 모르겠는데, 함께 알아보자.”는 식의 해명이 훨씬 안전하다. “신앙이란 답을 모두 다 모르는 사탄에 의하여 침해를 받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사람에 의하여 침해받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다. 존 에이. 윗소 장로는 “현명한 사람이라면 복음의 원리에 만족할만한 답변을 못얻었다고 교회를 등질 것이 아니라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찾아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이미 나타내 보여주신 사실에 토대를 둔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 현재로는 해당이 충분치 못한 문제라도 노력하는 가운데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과 신앙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주님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닌가? “인간은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 의사로서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루해야 하느니라”(교성 58 : 27)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물론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기는 하여야 하나 해답은 스스로 찾도록 해야 한다. 절대로 미리 정리된 내용을 주입시키려 하지 않아야 한다. 인간의 정신은 자유롭다는 사실, 모든 사람은 자기가옳다고 생각하는 바와 일치하는 결론을 내리며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할 자유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자기가 현재 생각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말은 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반원 각자가 특유한 사람이다. 본인은 “상대방이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내용으로 공격을 시도하는 것은 비지성인의 오락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에 동감의 뜻을 표하고 싶다. 자신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가르칠 때에는 그들이 과거에 경험한 것이나 현재에 경험하고 있는 바를 이용하여 그들이 지금 당면한 생활과 필요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

다. 생활, 행동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상주의의 황홀경에 빠지게 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이용한다. 비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생활에 도움이 된 경우가 있었던가? 생활과는 별 관계없는 것을 가르칠 때 이를 기가 막히게 잘 정돈된 채로 전달하여 들는 사람의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있다. 하기야 그런 가능성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경험에 바탕을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의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법이다. 꼭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충동을 받았을 때라도 학생들의 생각과 감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사람을 새로운 경험과 이해의 분야에 이르는 문을 여는 상태와 같으나 문은 배우는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다. 그 이외의 어떤 사람도, 교사까지도 그를 대신하여 들어가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철저한 준비를 갖춘다. 복음의 학자가 되는 것이다. 인생의 메세지를 대하는 열의를 학생과 나누어 가져야 한다. 느끼는 정도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교사가 반에서 제시하는 내용 이상에 까지 도달하게 도와주어야 한다. 교사가 발표한 내용은 곧 학생이 그 이상의 것을 연구할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반원이 다 함께 그같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통 냉담을 초래하기 쉽고 이런 분위기는 곧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기 십상이다.

아이들이란 열성과 호기심을 천성으로 타고 난다. 교사가 반원과 경험을 함께 나눌 기회를 막아버린다면 여러분이 준비한 말씀과는 별개의 기회를 찾아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잘못 인도된 열의나 독창성과 연관될 때 불손, 불경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관심의 척도에 따라 배운다고 믿는다. 흔히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잘 기억한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해보기 전까지는 자기의 것이라 할 수 없다.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을 협조하고 싶지만 교사를 제쳐놓고 대신 공과를 준비할 수도 없으며,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열의나 확신을 대신 가져주는 수도 없는 것이다.

그의 활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아 주기를 바란다. 교사는 준비 과정에서 주제에 너무 집착하여 학생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복음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주제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

는 것은 아니라는 구세주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 복음의 내용을 사랑한 나머지 반원을 부수적인 요소로 생각해서는 큰일이다. 예언적인 공과 방법(설교로 가르침)은 반원 모두가 그 말씀을 직접 경험했을 경우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복음에 쫓아 생활하기 바란다. 복음이 여러분 생활에 특이한 의미를 던져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전해지기를 바라겠는가? 자기의 능력으로는 배운 바를 이용할 염두가 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게 해야 한다. 가정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무한히 노력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 발견되는 잘못 일체를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신문, 텔레비죤, 영화, 대인 관계 등 매개체를 통하여 비기독교적인 행위를 경험하게 된다. 그들은 이런 행동을 언제까지나 자기와 신앙이 같지 않은 사람에게만 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들은 부모, 교회나 사회 지도자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 여러분 교사의 행동도 관찰하고 있다. 여러분이 그들의 교사로서 복음의 말씀을 자신과 가족의 생활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면 반원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라겠는가?

구세주의 말씀과 이를 가르치는 사람의 활동을 별도로 생각할 수는 없다. 현대 소위 생각이 깊다는 사람 중에는 많은 젊은이의 외형이나 행동에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심각한 위기를 조성해 놓았다. 즉 우리들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활동을 지시하는 가치관, 인생관, 인생을 대하는 태도, 확신의 진실성 및 확신도, 아주 기본적인 책임과 열망을 흐리게 하는 요소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우리의 경험과 생각의 혼합체이기도 한 생의 근본 철학에서 점점 커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젊은이와 과거의 경험을 염두에 두라는 것이다. 그의 연령에서 과연 어떻게 느꼈고, 생각하였고, 행동하였는가를 기억하여야 한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와 경험 일체를 기대하여서도 안된다. “현인의 머리를 어린 아이의 어깨에 올려놓 수는 없다.”는 말을 인정한다고 하여 그들이 항상 철부지 같은 행동을 해도 좋다는 특전을 주라는 것은 물론 아니다. 우리들 모두는 같은 과정을 거쳐왔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반원을 이해시켜 주기를 바랄 뿐이다. 포도원의 일꾼으로서 눈 앞에 보이는 보상을 받지는 못할지도 모르나 부모되는 사람의 무한한 감사와 더불어 반원의 존경과 찬사를 한몸에 지니게 될 것이다. ○

행복한 결혼: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제이. 죄엘 모스
오드라 쿨 모스

● 여러분의 연애를 되돌이켜 생각해 볼 때 가장 즐거웠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손을 마주잡고 가로수 밑을 걸던 일, 춤추던 일, 퍼크닉, 공부, 영화, 운동 시합을 보러 가던 일정치 또는 그 밖의 문제를 놓고 토론하던 일, 저녁을 나누던 일, 아니면 그저 담소하던 일이었던가? 사랑하는 일 이외에도 서로의 우정의 결속을 굳게 맺어주는 활동에는 얼마나 적극적이었던가?

이제 결혼하고 얼마를 같이 생활해 온 여러분이다. 전에 가졌던 우정에는 변함이 없던가? 서로 춤추던 시간을 즐겼다면 결혼 후 얼마나 계속되었던가? 부부가 나누는 이야기의 반은 처음으로 본 아이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반은 가정 생활의 운영에 관한 것이다. 최후로 두 사람이 함께 물건을 사려나간 것은 언제였던가? 퍼크닉은? 산책과 담소를 즐기기 위하여 함께 거닐던 일은 언제까지 계속되었나?

결혼이란 우정 행로의 연속이다.

사랑은 결혼의 기초적인 주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우정이란 같은 서로의 관계를 보다 진전시켜 주는 새로운 목표를 계속 설정하여 준다. 상대자를 만나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우정 행로는 일단 열심이라는 정상에 올랐다가 서서히 내리막 길을 달리는 경우가 많다. 옛정어린 추억의 금고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쓸모 없는 것으로 변하기가 쉽다.

훌륭한 우정의 형태를 골고루 갖춘 이 추억의 금고는 적어도 결혼에 있어서는 정말로 안전을 약속한다. 그러나 이 금고가 제공하는 것은 모두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우리들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우리의 생활을 새로운 우정으로 확대하여 나 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마치 여러 해 동안을 반려자로서 뿐만 아니라 춤, 여행, 아이의 양육, 이 밖에도 수많은 일에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형태의 우정은 여러분의 관계에

자석과도 같은 힘을 부여해 준다. 그러나 새로운 우정을 쌓기 위하여는 열의가 필요하다.

어떤 부인의 말을 인용해 보자. “우리는 사냥, 활쏘기, 낚시질, 골프, 정구 등 모든 활동을 같이 해왔다.”

여러분은 이미 극에 달했다가 식어버린 내용을 나누는 것 이외에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 내년에는 어떤 것을 나눌 것인가? 부부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활동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결혼 관계에서 두 사람은 서로가 흥미를 안겨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매력적인 외모를 오래 간직하는 법에 대한 책은 수 없이 많다. 외모는 확실히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람을 흥미의 대상으로 만드는데 있어서는 새로운 열의를 땄을 게 없다. 이는 외모, 회화, 태도, 감정, 반응에 곧 영향을 미치게 된다.

누구나 다 서로 나눌 가치는 있

는 새로운 경험을 생각해 낼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실제로 스스로 창안해 내는 일 보다는 남의 생각을 그대로 따르는 게 훨씬 쉽다. 시초에는 상당히 적극적이었다가 얼마 가지 않아 시들해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는 사람도 많다. 아주 좋은 생각이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시작할 능력이 있다면 결혼을 위하여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그러면 반려자는 훌륭한 우정 경험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성장하며 자신의 독특한 경지를 개척할 능력을 갖게 된다.

결혼한 사람이 모두 이같은 방법으로 경험을 나누고 있지 못함에 주목해야 한다. 서로 나눈 것이 어떻게 한 사람만의 문제가 될까! 결혼한 사람으로 상대방이 결혼의 경험에 적극적이 못된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분석하여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참여는 하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서 움직여 주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지금까지 부부로서의 우정이 중요함을 살펴보았는데 서로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열의를 새롭게 하며 실제로 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일주일 정도의 여행은 여러분이나 반려자를 조금 더 짚게 만들어 준다. 결혼에는 가끔 팔에 주사를 맞는 것 같은 경우가 필요하다. 이는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동기를

마련해 준다. 그러나 새로운 우정을 찾아 상대방의 결을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함께 흥미 있는 일에 몰두하여 새 경지를 개척하는 것이다. 운동, 취미, 미술, 음악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는 변명을 듣는다. 남이 웃읍게 생각할 것이 두려워 이를 피하려고는 하지 않았던가? 로마의 위대한 저자인 키케로는 칠십대에 들어가서 희랍어를 시작했다. 사십대에 피아노의 초보를 시작한 친구는 없던가?

열의를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는 것이다. 이 말에는 이미 그렇게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질문은 참으로 매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오늘은 별 다른 일 없었겠지?” “그래 뭐가 사고 싶단 말이오?” “단추 떨어진 건 어떻게 됐지?” 여섯 살 먹은 아이와도 같은 질문을 우리는 너무 자주 반복하고 있다.

다른 것은 물어보고 싶은 게 없을까? “내년에 꼭 하고 싶은 건 뭐요?” “오늘 하루 중에 제일 재미 있었던 건 뭐요?” “내가 한 일에 기분이나 상하지 않았오?”

질문은 화기에 가득찬 토론을 유발해야 한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의 독특성을 알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지만 맥에서 지적한 것으로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없는데요?”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본인이 지적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말은 아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그러나 꼭 따라야 할 규칙이 한 가지 있다. 질문은 상대방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이야기해 달라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질문은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하는 자유로운 토론이 되며 동시에 쌍방의 성장을 약속할 수 있다. 아울러 서로를 감사하는 마음도 갖게 된다. 부부 사이에 나눌 수 있는 것 가운데 중 가장 의미있는 것을 들라면 아무래도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들고 싶은 사항은 결혼 생활에 어떤 자극을 주라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방법은 너무도 많다. 결혼한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제언의 일부를 소개하겠다. 그 중에는 여러분의 취향에 맞지 않는 것도 있겠으나 대부분이 자극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믿는 바이다. 실제로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는 경우라 하여도 이를 읽고는 웃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 역시 결혼에 필요한 요소이다.

결혼 생활을 보다 재미있게 하는 방법.

남편이 해야 할 일

- 언제나 우월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지 말라. 눈물이라도 지으면 어머니라도 된 것 같아 호뭇해 할 것이다.

- 향내 그윽한 꽃을 안겨준다.
- 부인을 고객을 대하는 것처럼

예의 바르게 대한다.

● 오래 전에 결혼한 경우라도 부인의 요리 솜씨를 칭찬한다.

●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부인의 충고를 부탁하고 때로는 받아들인다.

● 부드러운 태도는 자신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 이유를 부치지 않고 선물을 한다.

● “오늘 점심에도 이걸 먹었는데”라는 말은 절대 금물이다.

●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대신에 그녀가 꼭 원한다고 믿는 것을 준다.

● 부인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중요한 대목을 놓치지 않는다.

● 부인을 위하여 새로운 농담을 익혀 둔다.

● “하루 종일 도대체 무엇을 했오?”라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 이 기사를 읽고는 바로 부인에게 다가가 결혼하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다는 말을 한다.

부인이 해야 할 일

● 이웃 사람에게 행복한 결혼을 즐기고 있다는 말을 한다. 이 말은 남편의 귀에 들어가 그를 기쁘게 해줄 것이다.

● 식사 전에 문제를 꺼집어 내지 않는다. 차가 못쓰게 되었다든지 문제가 두통꺼리일수록 홀륭한 저녁을 준비한다.

● 적어도 아이에게 쏟는 주의와 사랑으로 남편을 대한다.

● 남편이 사용하는 말을 정확하게 판단한다. “좋아 보이는데”는 “여보 오늘밤은 정말 아름다운데”를 뜻하는지도 모른다.

● 때때로 사랑의 편지를 써서 준다.

● 가정을 남편이 쉴 수 있는 안락한 장소로 만든다.

● 모든 일을 남편에게 돌리지 않는다. “아버지만 돌아오셔 봐라.” “나는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아버지가 반대하시는구나.”는 금물이다.

● 결혼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한 말이나 행동을 기억하고 이를 다시 해본다.

● 남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나아가 많다는 구실로 막지 않는다.

● “저를 사랑하세요?”라고 묻지 않는다.

● 무엇을 하겠다고 할 때는 믿어준다.

부부가 해야 할 일

● 때로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 같이 대한다.

●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

● 취침 전에 드리는 기도에서는 실제로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는 높은 차원의 것을 말한다.

● 서로가 즐기는 운동을 한다.

● 논쟁을 좋아하는 친구와는 접촉을 갖지 않는다.

● 둘 중에 한 사람의 새로 산 차에 흠을 만들어 놓은 경우에라도 웃고 만다.

● 시간에 얹매어 살지 않는다. 상대방이 조금 늦는다고 지나치게 책망하지 않는다.

● 동시에 화를 내지 않는다.

● 될수록 큰 가족을 갖는다.

●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 우중에 산책을 한다.

● 문제가 생기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해결한다.

● 가족 앨범을 만든다.

● 미래를 위한 계획을 갖는다. 할 일, 살 물건 등을 미리 정해 놓는다.

● 나, 나의, 나의 것 등의 용어 대신에 우리, 우리의, 우리의 것 등을 사용한다.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을 칭찬한다. 결코 경쟁을 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 규칙적으로 약을 먹는 경우에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먹는다.

● “훌륭한 남편은……” “훌륭한 아내는……” “여하간에 난 당신을 위해서 하지 않았소?” 등의 말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삼가한다.

● 원하지 않는 파티에는 참석치 않는다. ○

우리 조상의 구원

윌리암 오. 위티커

선교부장단 집행서기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면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점이 무척 분명하며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성도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 홍차는 물론 알콜성 음료도 다른 사람들은 마시나 성도들은 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밖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제로 행동해 보이는 우리의 종교적 신념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정되어 적어도 우리는 보다 훌륭한 기독교 신자라는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이와같이 될 때에 우리는 진실로 예수께서 가르치신대로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치게하여 저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컨대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사람과 판이하게 다른 종교적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하여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나가는 동안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앤수 등의 원리와 친숙해집니다. 이러한 원리는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지켜야합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죄를 회개해야 하며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를 받아야 하고 앤수례를 통하여 성신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기본 원리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들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조상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957년에야 비로서 한국 땅에 첫번 선교사가 도착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미국 군인들이 복음을, 그것도 짧은 기간동안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처 복음의 지식을 얻을 사이도 없이 훌륭하신 많은 한국인 성도의 조상들이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나 참된 회개나 침례 의식이나 성신의 은사를 받을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지혜의 말씀을 지켜야 하듯 조상의 구원을 위해 일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 이후에도 우리의 조상은 복음을 배울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수도 받아 드릴 수도 있고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공부한 다음에는 이들에게도 역시 스스로가 범한 죄를 뉘우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죄를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는다면 그 성신의 은사를 받는 의식은 이 땅에서만 가질 수 있는 의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자비로 우리의 조상이 해의 영광과 승영을 받을 수 있는 온갖 계획과 방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계획을 계보 사업이라 하며 우리의 조상을 위해서 이 땅에서 협력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조상을 위한 계보 사업은 단순한 조상 존경도 아니오 제사장을 마련하는 일도 아니오 제사 때 향불을 피우는 일도 아닙니다.



계보 사업은 우리에게 우리 조상에 관한 지식을 수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를 가족 기록서에 기재하여 교회 본부에 보낸 다음 조상을 위한 대리 의식을 신전에서 집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자기 조상의 위치를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그가 충분히 구원에 필요한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마태 카우리 사도는 교회 연차 대회에서 1947년 이 계보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은 자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우리 없이 죽은 자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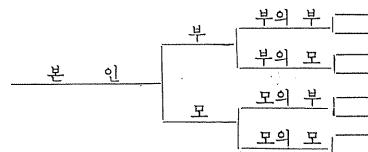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는 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자가 없나니라’ (요한 5: 28—29 14: 16)

나는 여러 나라와 섬의 백성들이 조상에 관한 자료 등을 수집하여 계보사업을 하며 수집된 자료를 신전으로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궁지가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조상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압니다. 태평양 군도의 모든 사람도 위대하고 착한 조상이 없이는 온전히 구원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곳 한국 선교부에서도 박 재암 형제를 중심으로 계보 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박 재암 형제는 지방부 및 지부를 위한 계보 조직을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써 여러분은 계보에 관하여 더욱 공부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일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모든 성도가 4대의 가족 기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모두 실제로 계보를 연구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않된다는 뜻입니다. 기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이 일에 종사하여 노력할 때 여러분이 필요로하는 사항과 도움을 얻으며 조상의 구원을 위하여 일했다는 평화를 느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카우리 사도의 말씀을 이곳에 응용하건데 한국의 말일 성도는 그 위대한 조상 없이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



시온산의 구세주 가족의 구세주

바틀리 이. 데이
선교부장 제2보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전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 4:5-6)
말라기의 예언 속에 담긴 말씀은 모든 나라, 족속, 백성을 향한 경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계보 사업에 필요한 기록을 수집, 정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바로 그날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위대하고도 영화로운 시현이 갑자기 우리에게 열리더라. ……예언자 엘리야가 우리 앞에 서 계심이라. 또 이르시되, 보라 진실로 그 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 말라기의 입으로 이야기되던 때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저(엘리야)가 파송되어 선조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며 자녀의 마음을 그 선조에게 돌이키게 하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온 땅이 저주로 얹어 맞으리라고 증거한 그 때니라.” (교성 110:13-15)

선조의 이름을 기입하는 데에는 다소 곤란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서처럼 계보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나라도 드물 것 같습니다. 여하간에 주님의 계명은 이미 주어져 있고, 과연 우리가 가공할만한 저주의 무리에 끼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오로지 이의 큰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읍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만 계보 사업에 참여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그 사업의 참다운 정신과 간증을 얻지 못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독일에 있던 미군 형제 지방부장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스위스 신전에 갈 기회는 언제든지 있었고 매 달 한 주 말은 영어로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집에서 다섯 시간만 여행하면 신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은 죽은 사람을 위한 의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마음 속에는 신전에서 갖는 의식 보다는 교회의 훌륭한 회원과 사귄다는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신전엔 가려면 두 나라 경계 초소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일본을 왕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비 서류를 완전히 갖추었을 때에야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훌륭한 형제는 스위스 신전을 향하여 길을 재

촉하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경계 초소에 이르러서야 입국 수속에 필요한 서류 한 가지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초소병은 아주 예의 바른 태도로 보내드릴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곳에서 몇 마일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도 역시 초소가 있었는데 그리로는 통과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일행이 그 지점에 이르렀으나 입국 절차는 첫 번째 다를 게 없었습니다. 역시 공손한 태도로 입국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친구는 당황하였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건 능란하게 처리해낸 그였지만 두 나라 경계를 넘지 못하는 벽에 부딪쳐 신전 의식 참여에의 길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근처에 있던 전화를 빌려 아직도 집에 있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가족은 즉시 손을 써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신전 의식을 받을 사람으로 아직 집을 떠나지 않은 사람 편에 보냈습니다.

기다리던 시간은 길고 초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성거리며 다른 사람이 경계를 지나 신전으로 향하는 유쾌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처리할 수 없는 위치에 처한 그로서는 다른 사람이 필요한 자료를 가져다 줄 때까지 기다리는 도리 밖에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귀중한 서류를 가지고 도착한 사람들과 함께 신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전의 어셈블리 룸에서 저의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가족의 계보 사업에 꼭 있어야 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저의 선조가 하늘 왕국의 문 옆에 서서 영생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문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다른 사람이, 아니 제 자신이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실 때의 감정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지금 이 시간에도 무덤의 문을 지나 하늘 왕국에 들어갈 경계 초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해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전에서 의식을 갖는데 필요한 내용을 뒷받침 해줄 선조를 찾는 일, 계보 탐구의 일로 시작이 됩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온 산의 구세주가 되기를, 자신의 가족을 위한 구세주가 되기를!

교육 — 무엇때문에?

리차드 엘. 이반스

● 사무엘 존슨은 “지식없는 고결은 나약하고 무용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결이 결여된 지식은 위험하고 두려운 존재.”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교육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우리들은 참다운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부단히 자문하여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교육이며, 무슨 목적으로 교육을 해야하는가는 언제나 문제 이상의 문제이었습니다. 물론 교육의 목적을 지식과 기술의 습득, 능력과 이해의 정도를 높이는데 둔다고 하여 전혀 틀리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개성과 성실을 반드시 수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일 악과 기만을 위하여 교육을 시킨다고 가정하여 보십시오.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행하는 악이 그렇지 못한 사람의 악과 같을까요? 보다 교묘하고 파괴적이라는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개성없는 재능, 개성없는 능력, 개성없는 무기, 개성없는 말에 관하여 고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성없는 교육을 위시하여 개성을 수반치 않은 일체의 것은 위험합니다. 교육이 어떤 도덕의 대용물이 되어서는 안되며, 안전하고 복된 사회를 원한다면 젊은이를 가르치고 지도할 때 그들이 이미 갖추어 갖고 있는 개성에 도덕, 윤리, 영적인 요소를 첨가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크마우스 대학의 덕키 총장은 “교육의 목적은 능력 및 양심적인 면에 있어서 완전해진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강한 능력을 가르치나 이것의 사용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여 주지 못한다면 이는 그릇된 교육이다. 이런 경우의 능력은 인간을 양심의 상태에서 끌어내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습니다. “교사란 영원히 영향을 미친다. 어느 곳에서 자기의 영향력이 멈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헨리 아담스는 갈파하고 있습니다. 도덕, 윤리적인 내용이 교육에서 결여될 때 우리의 미래는 실로 위험하다 하겠습니다. “지식없는 개성은 나약하고 무용한 것이나 개성없는 지식은 위험하고 두려운 존재이다.”

제리의 말씀은 유명한 물론 태버나를 합창단의 노래와 함께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600기로 사이클의 서울 중앙 방송국 제2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560 키로 사이클의 AFKN에서도 매주 일 오전 10시 5분부터 방송되고 있습니다.